

# 광주공원 국밥거리 '추억속으로'

60년대 말 서민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소웃잔을 기울이며 삶의 애환을 달궜던 광주시 남구 구동 1번지 '돼지국밥집 거리'가 '맛의 역사'를 마감한다.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 곳을 공원지구로 지정, 개발하기 때문이다.

터줏대감 격인 '광주공원 국밥집', '나주식당' 등 돼지국밥집 거리의 '원조' 식당가가 철거되고 이 일대 5천547㎡는 오는 2010년께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 공원(가칭)'으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164억원을 들여 휴게시설, 산책로, 광장으로 구성된 시민 휴게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철거 작업은 토지·건물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6월~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중·장년층에게 '불야성'으로 통하는 돼지국밥집 거리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65년 9월 구동체육관이 개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를 겨냥해 한 집 두집 동지를 틀었던 국밥집들이 무려 20여곳에 달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고광삼 광주시 배구협회장은 "당시 종합실내체육관이 많지 않던 탓에 수많은 전국대회가 구동체육관에서 열리면서 선수, 가족, 관중들이 뒤엉켜 이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며 "한 때 돼지국밥집에서 밥먹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돼지국밥집 거리는 80년대 야간

## 60년대말 20여곳 '불야성' 성업 공원 조성 내년 6월까지 일부 철거

통행금지 때는 밀려드는 단골 손님들을 내칠 수 없어 가게 전등을 꺼놓은 채로 장사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먹을거리가 다양해진 데다 구동체육관 열리는 경기가 뜸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 준 만큼 가게들도 자취를 감춰 현재 10여곳 만 남아있다. 구동체육관은 지난 8월 초 철거돼 현재 빛고을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80년대 화려했던 시절을 마감한

뒤에도 대를 이어 맛의 명맥을 지켜 오고 있는 국밥집 '업니'들은 삶터를 떠나는 아쉬움 보다 단골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광주공원 국밥집'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49)씨는 "타 지역에 살면서도 명절 때 마다 가게를 찾는 단골들을 맞을 수 없게 됐다"며 쓸쓸해했다.

나주 식당 김모(여·49)씨는 "서울에서 찾아오는 오랜 단골들이 옛 맛이 아니라고 투덜(?)대면서도

자꾸 온다"며 "돼지국밥집 거리에 맛과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사업착수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게 돼 아쉽지만 공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즐겨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다"며 "국밥집 원조에서 계속 영업하는 돼지국밥집들이 있는 만큼 명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성필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시민들에게 '맛과 추억의 1번지'로 통하는 광주시 남구 구동 1번지 '돼지국밥집 거리' 일대가 내년 9월까지 철거되고 '아시아 문화커뮤니티 공원(가칭)'으로 조성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평양에 남북합작 사료공장 건설

광주시-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하루 50t 생산 규모 내달 중 착공

광주시와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상임공동대표 조철현)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에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차례 걸쳐 북측과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해온 결과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적극 추진기로 했다.

당초 시와 협의회는 돼지축사 현대화사업 지원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북측이 사료공장 건설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시 사동구역내 5천㎡의 부지

에 하루 50t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배합사료공장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짓게 된다. 남측은 자재와 사료배합기 등 기계설비를 지원하고, 북측에선 부지와 건물, 공사인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다.

7억원에 이르는 기계설비 지원 비용은 광주시가 올해와 내년 5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시 민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공장 건설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 달 초 남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북측이 최근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축사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산시설 및 기술 확보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며 "협의회 설립 이래 이같은 대규모 지원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북한 함경남도 등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사업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시멘트와 강재를 지원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과기원 '햅틱 기술' 선도

촉각기술 연구센터 개소... 분야별 원천기술 개발

터치형 휴대전화나 수술 시뮬레이션 등에 사용되는 햅틱 기술을 선도할 연구소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들어선다.

광주과기원은 7일 원내 행정동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촉각기술연구센터'(센터장 류재하·사진·이하 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2008년 신규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정보통신연구센터) 사업에 지정된 바 있다.

센터에서는 몰입형 햅틱미디어

기술 개발을 위해 햅틱 정보의 획득, 처리, 제시 등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센터는 이 같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촉감이 가미된 실감책 및 고성능의료훈련 시뮬레이터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촉각영화, 촉각방송, 원격수술, 원격측진 자동차, 로봇의 원격조작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연구개발 자문을 맡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이우정 교수가 오전 11시 20



분부터 의료훈련 시뮬레이터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정성필기자 camus@

▲햅틱(haptics)=그리스어로 '만지는'이라는 뜻의 형용사 'haptesthai'에서 온 말로 컴퓨터 촉각기술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컴퓨터 정보가 시청각에 의존했던 것에 비해 햅틱은 촉각과 힘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 지하철 남광주역에 나눔드리 책방 9호점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11일 지하철 남광주역에 '나눔드리 책방 9호점'을 개관한다.

시립도서관과 광주도시철도공사, 교통문화사랑실천봉사단이 협력해 도서관과 장소, 시설을 마련한 이 책방은 60㎡의 열람공간에 일반·아동도서 4천권을 갖는다.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1회 3권씩 대출할 수 있다. 나눔드리 책방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의 무등도서관(062-264-9857). /정후식기자 who@

## 광주시·경찰청 후원 새터민 7쌍 합동결혼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광주시 거주 새터민 7쌍이 7일 오후 5시 서구 농성동 메리어트호텔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린다.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새터민상담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새터민 가족, 자원봉사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결혼식은 네트소리민속예술단의 남북한 전통음악공연과 신랑신부 입장, 혼인서약, 주례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정후식기자 who@

##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13일~16일 DJ센터

광주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한다.

지역 건축인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 우수 건축물과 건설 관련 자재들을 한 자리에 모은 건축박람회와 함께 열린다.

'우제길 미술관 열린 공간' 등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 작품과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 한·일교류작품 등 200여점이 선보인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작품과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장상근 시 건축주택과장은 "지역 건축가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축축제로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고객들과 머리 맞댄 부실시공 예방 대책

광주시도시공사 모니터요원 간담회

광주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일 공사 회의실에서 '고객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가졌다.

고객모니터요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임대주택 입주자, 각종 공사 관계자 등 28명으로 지난달 1일 발족했으며,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과 현재 진행중인 중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주요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현구(36·북구 용봉동) 위원은 "도



시공사는 공기업을 만큼 각종 사업이 공기업에 걸맞게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사장은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우수 공기업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한국전회번호부를 만나듯 다양한 방법

신속한 서비스와 간편한 신청방법, 24시간 상담과 24시간 배송,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전화번호부 신청은 지금! 24시간 상담과 24시간 배송,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전화번호부 신청은 지금! 24시간 상담과 24시간 배송,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전화 신청** -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업종 및 상호 전화번호부

2008년 광고매달 임박! 광고문의 062) 512-1144